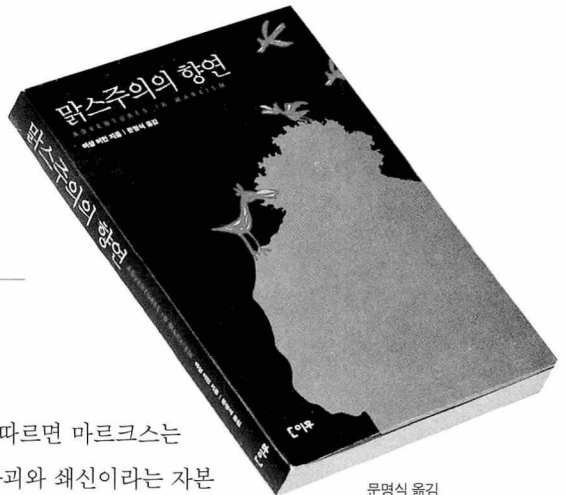


# 여전히 유일한 가능성의 중심, 마르크스주의

마살 버먼의 《맑스주의의 향연》을 읽고



문명석 옮김  
이후/A5/370면/13,000원

마살 버먼의 《맑스주의의 향연》은 《공산당 선언》,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세계의 변혁가능성을 꿈꾸게 하고 또 실제로 그 가능성의 중심에서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 이율배반적 요소 사이의 긴장이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가치

버먼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그 믿음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다.

그는 “각자의 정체성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고 그 누구의 자아도 펼쳐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계급적·성적·인종적 억압 형태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한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를 창출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가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공황을 통한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빛나갔고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기획이 실패로 끝난 이 시기에, 지식인, 주체, 문학 등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되는 이 마당에 마르크스주의라니? 그럼에도 버먼은 마르크스주의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그의 믿음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으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그것은 버먼의 활달하고 막힘 없는 문체 탓이기도 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의 독창적이고도 현대적인 해석에 기인하고 있다.

버먼은 주기적인 공황으로 자본주의가 파괴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는 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비록 폭발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이끌기 위해 자본주의의 붕괴를 멀지 않은 미래로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크스의 공황론에는 “더욱 광범하고 더욱 파괴적인 공황의 길을 닦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버먼은 마르크스주의에는 이처럼 성찰과 실천, 희망과 절망, 파괴와 건설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공존하며 이들 사이의 긴장이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버먼은 또한 마르크스를 위대한 모더니스트로 읽을 것을 권고한

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영원과 파괴와 쇠신이라는 자본주의적 역동성을,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소외를 보들레르 못지 않게 예민하게 파악해낸 모더니스트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의 전망은 인간주체, 혹은 계급주체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버먼은 마르크스의 낙관주의적 전망이 근대적 자아를 모든 근대적 자아들이 존재하게 된 사회적, 역사적, 인식론적 맥락 안에서 올바르게 파악한 결과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인간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 마르크스주의의 다양한 시도 풀어안아

이 책은 마르크스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들을 끝

어안는다. 버먼은 마르크스주의가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나선다. 《자본론》과 《공산당선언》 그리고 루카치와 벤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가들의 저작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자본론》에 등장하는 존재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삶 속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흔적과 공과(功過)를 읽어낸다. ‘거리에서의 모더니즘’의 위력을 강조해온 그 특유의 역사적 현장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나, 이것으로 인해 《맑스주의의 향연》은 매우 풍부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기록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최인훈의 《화두》(민음사)와 황석영의 《손님》(창작과비평사)이 떠올랐다. 아마도 《화두》에는 마르크스의 원전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르크스주의 시대가 오고가는 우리의 황폐한 역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 또 《손님》에는 그런 마르크스주의가 불러온 광기의 현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요즘 《맑스주의의 향연》과 만난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는 것도 아마 이 과거의 기억 때문이리라. ■

류보선 교수는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현재 군산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학평론가와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평론으로 《사생아·자유인·편모술하—한국성정 소설의 세 형식》(중심을 향한 동경—한국근대문학연구의 정치적 무의식) 등이 있다.